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 등극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고 있는 LNG 수송선
사진=대우조선해양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한국 조선업체들의 친환경 기술이 불황 탈출의 열쇠가 되고 있다.

지난 30일 'KBS'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빅3'는 지난 11월 이후 85척 113억 달러어치의 선박을 수주했다. 이는 약 40만 대의 중형 자동차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 이상을 쓸어 담았다.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독

보적인 친환경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

글로벌 조선·해운 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은 총 63척이다.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1척, 19척, 6척을 수주해 한국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LNG선은 적당 가격이 1억8,600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 선박이다. 수익성은 높지만 높은 건조 기술력이 필요해 한국 조선업체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대형 선박의 친환경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 연합은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규제에 이어, 에너지 효율 계산지침과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등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낡은 선박은 운항 출력이나 속도 제한이 불가피해, 선박 교체 수요가 더 늘게 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선에만 의존했던 작년과 달리 컨테이너선, 유조선 발주도 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난에 실업난까지



▲ 취업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고용 시장을 덮쳤다.
사진=shutterstock

취업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고용시장을 덮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내년 3월까지 채용 계획 인원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가 한층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 3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25만 6,000명) 대비 1.1%(3,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하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 인원 중 가장 적다. 2011년 이후 같은 시기 채용 계획 인원은 해마다 30만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9년 3만 9,000여 명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소폭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이 더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86.3%를 차지하는 21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다. 고용부의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수는 1554만 명으로 전년 동월(1,577만 3,000명) 대비 1.5%(23만 3,000명) 감소했다.

월소득 169만 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2021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소득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0년보다 14.2% 상향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169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월소득 270만4,000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14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에서 기준을 올린 것이다.

소득하위 0~40%는 월 30만원, 40~70%는 최대 25만 원이던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도 2021년부터 70% 이하 전체에게 30만 원을 준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달라진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

단 지사 등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이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을 맞기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4,53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는 월 267만8,000원, 개인은 164만5,000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차 조사와 비교해 부부는 24만4,000원, 개인은 10만8,000원 늘었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부에나 팍 4유닛	오바린다 3유닛	오렌지 4유닛	코스타메사 4유닛
방5 화3 3,118 sq 최고위치 Los Coyotes골프장 근처 부엌, 화장실 리모델 인공폭포, 많은 과일나무 \$1,199,000	방5 화3 2,940 sq 최고 위치, 좋은 학교 바베큐, 태양광 \$933,000	방2 화1 / 4개 Garage 수입 \$84,960 \$1,260,000	방3 화2 Garage, 2006년생 수입 \$100,800 \$1,999,000	방2 화1 x 3 방2 화2 x 1 1979년생 연인컴 \$87K 좋은 위치, 교통 편리 좋은 동네 사립물 근처 \$1,280,000	방2 화1 x 4 1965년생 연인컴 \$75,300 좋은 동네 사립물 렌트 선호 지역 \$1,375,000
오렌지	터스틴	애나하임 6유닛	터스틴 4유닛	애나하임 4유닛	라하브라 4유닛
방5 화3 2,685 sq 오렌지 힐 근처 최고의 위치, 동네 부엌, 화장실 리모델 준비중 \$1,100,000	방4 화2 1704 sq 안정된 동네, 좋은학교 리모델 부엌 \$795,000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1,399,000	방3/2 화2/1 월인컴 \$7,198 \$1,425,000	방3 화2 x 1 방2 화2 x 2 방2 화1 x 1 Upside Potential 1968년생 좋은 구조/위치 \$1,399,000	방2 화2 x 4 1962년생 연인컴 \$83,850 교통편리, 선호 지역 \$1,230,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